

#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7. 7 ~ 2019. 7. 27 제207호



▶ 부르키나파소의 정다운 오누이

제공: WMM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품없지만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정비소를 지키는 남매가 있다. 벽에 기대어 놓은 녹슨 철제 선반 앞 작업대에는 공구들이 어지러이 모여 있다. 그 아래 플라스틱을 쪼갠 바구니에는 여러 부품들이 담겨 있다. 거친 돌 벽에 기대어 있는 오토바이 부품들 중 앞에 있는 작은 휠은 동생의 전용 의자다. 그러나 등받이도 없는 조그만 의자가 불편한 동생은 기어코 누나의 다리로 자리를

옮겼다. 누나는 그런 동생이 귀찮지만, 사랑으로 받아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동생을 환하게 웃게 한다. 주님이 생명 안에 심어놓으신 사랑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흘러간다. 나의 불편함보다 동생의 웃음이 더 귀해서 나 혼자 편하게 앉는 것을 포기하고 동생과 함께 누리는 것을 즐겁게 선택한다. 사랑을 받은 동생의 행복한 웃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된

다.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형제를, 가족을, 교회를, 민족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다. [GNPNEWS]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한일서 4:21)

다음 호는 7월 28일자로 발행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 ‘6·25는 북한의 남침’ 국민 20.4% “몰라요”

한반도의 비극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은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20.4%가 6·25전쟁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 자유포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하여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나?’는 질문에 79.6%가 북한이라고 답했으며 전쟁주체를 미국이 8.4%, 중국이 4.5%, 남한이 3.1%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20.4%가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많은 28.5%에 달했다.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500여만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를 낳았으며, 2000여 교회가 파괴되고 534명의 교역자가 처형됐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 16개국의 유엔군이 190만 명 참전했다. 그중 미군은 참전군인 중 93%에 이르는 무려 178만 명이 내한했으며, 그중 5만 4246명

(작전중 사망자수는 3만 373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해방된지 1년 뒤인 1946년부터 1976년까지 30년간 무려 126억 달러를 한국에 원조했다. 한국은 그 자금으로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경제발전에 재투자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장로총연합회는 올해 6·25를 맞아 논평을 통해 6·25의 비극을 잊지 말 것과, 국민통합의 단결된 힘만이 전쟁을 막는 길이며, 한국교회는 지금 물질주의, 쾌락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돌이켜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밝혔다. [GNPNEWS]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

**기도 |** 하나님, 한 사회의 위기는 교회의 타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호세아가 절규하듯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조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82)

## 이사는 손 없는 날에, 결혼은 궁합을 보고 해야죠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지.” “결

혼도 날을 잘 받아야지, 궁합도 보고...” 등 길흉화복을 따지십니까? 어떤 집안은 태어나는 아이의 ‘시(時)’를 좋게 하려고 나오는 아이의 머리를 억지로 밀어 막고 있다가 좋은 시간을 택해 나오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인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막연하지만 깊은 믿음.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의 존재를 어떻게든 잘 달래서 안전을 보장받고 현세적 성공을 원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앞날을 예견한다는 이들 앞에 복채를 바치고, 곁을 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길어야 100년 안에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몰라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당신의 미래입니다. 매일 자신의 생각과 판단 명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당신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사람이므로 당신의 미래는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지옥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당신의 죄를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



일러스트=김경선

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이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 왕으로 모신다면 미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좋고 나쁘다는 것에 온통 매여 살아온 그 삶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은 100년의 모든 삶이 자유롭습니다. 이제 당신을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그 운명을 결정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세요.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복음기도총서1

내가 귀찮다  
 뜯어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뜯어서 읽는 전도편지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boaz.co.kr](http://www.jakinboaz.co.kr)

복음의소리 도서출판 **복음과기도미디어**



# 베트남 교회, 인쇄물·디지털 자료 활용 훈련 통해 고난 극복



▶ 핍박 속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웃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출처: 한국 순교자의 소리 캡처)

엄격한 종교 규제법으로 핍박받고 있는 베트남 교회 목회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최근 밝혔다.

한국VOM은 인터넷을 통해 최근 베트남 교회 목회자들(지도자들)과 새롭게 협력, 베트남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인쇄물 출판, 디지털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경찰이 교회에 난입해 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이 자주 공격당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신념과 종교에 관한 법률(Law on Belief and Religion)'을 시행한 이후, 모든 교회가 정부에 등록하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VOM에 따르면, 기독교에 자유를 보장하던 베트남 정부가 갑자

기 이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독교인 소수 민족, 특히 몽(Hmong)족과 몬타나르드(Montagnard)족 기독교인을 오래 전부터 핍박해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 고원지대에 사는 몽족과 몬타나르드족 기독교인 1만 명 가량은 국적이 없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지 않은 것에 보복하려고 지역 당국에서 신분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 훈련 프로그램은 VOM이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핍박 받은 경험이 있는 베트남 현지 지도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베트남 교회 지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먼 길을 달려가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면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훈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NPNEWS]

## 中 삼자교회, 공산주의 숭배 거부하고 지하교회 찾아

교회 박해를 일삼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강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승인한 삼자교회마저 박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로 합류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 비터윈터가 당국의 강도 높은 박해가 지속되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삼자교회를 벗어나 지극한 박해의 위협에도 가정교회에 합류하는 신앙인과 성직자들이 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탄압의 마수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위해 일부 삼자교회들은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장시성의 한 삼자교회 목사는 정부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설교자 인증제 및

네 가지 의무 사항, 즉 '4요건' 정책을 강제로 도입하자 이에 반발해, 성도들을 데리고 삼자교회를 떠났다. 4요건이란 ▲예배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설교에 포함하며 ▲중국의 법과 규제를 선전하고 ▲중국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다. 그는 이 때문에 요즘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통제에서 탈출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종교인들에 관한 자세한 신상 정보 등록을 시작했다. 삼자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관리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행방을 추적한다. 만약 그들이 신앙을 포기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

인되면 즉각 감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삼자교회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모여든다. 이들이 모이는 지하실은 대체로 작고 좁으며 환기 장치도 없다. 이렇게 불편하고 박해를 받게 될 위험이 커졌음에도 신도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삼자교회 신도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 정부 간섭을 배제하려는 그들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한 교회 지도자는 "삼자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공산당을 숭배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지하실에서 계속 모임을 해야만 하더라도 장차 삼자교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NPNEWS]

## 청소년 대상 복음수련회가 7~8월 국내 곳곳에서 열려

올 여름 청소년을 위한 복음 수련회가 국내 곳곳에서 열린다.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인 '철장든 신부'가 주관하는 14기 청소년복음캠프가 2019년 8월 5일(월)~9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대상은 중1~고3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6월 13일(목)~7월 13일(토) 까지다. 원서

는 웹사이트(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소는 추후 공지. 문의 ☎010-5146-4641, 010-7364-9982

또 이 땅의 다음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모임인 '청소년복음화를 위한 연합(청복연)'이

주관하는 '고 투게더(GO together)'가 경기도 광주 문광교회(담임 최종덕 목사)에서 7월 29일(월)~8월 1일(목)까지 열린다. 대상은 중1~고3으로 웹사이트(cafe.naver.com/youthgnr)에서 원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nggn777@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10-3380-5781, 010-7331-7710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6. 17 ~ 6. 2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미국장로회(PCUSA), 최초로 '제3의 성' 정체성 주장 목회자 임명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한 미국장로회(PCUSA)가 자신을 제3의 성(nonbinary)이라고 주장하는 제스 쿡을 목회자로 안수, 정식 교단 목회자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진리를 벗어난 미국장로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회복하십시오.

### 미국 미주리주, "낙태 시술 병원 단 한 곳도 없다"

미국 미주리주 보건부가 21일 주 내에서 유일하게 낙태 시술을 해 온 마지막 남은 낙태 클리닉, '가족계획 세인트루이스 헬스센터'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면서 미주리주가 낙태클리닉이 단 한 곳도 없는 주가 됐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미주리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 부천시 젠더마을 조성 방안 철회

부천시가 추진하던 젠더마을 조성 방안 추진이 지난 25일 철회됐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와 시민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만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젠더전문관 등 동성애 옹호 조장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악에 대항하여 행동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에 대항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 中, 결혼 등 미끼로 납치된 동남아 여성 1100여 명 구출

중국 당국이 21일 동남아 5개국과의 협조 속에 1100명이 넘는 납치된 외국 여성들을 구출했고 1300명이 넘는 납치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취업 또는 결혼을 미끼로 외국 여성들을 꾀어 중국으로 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납치된 여성들이 구출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납치돼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탄의 울무를 끊어버리신 십자가를 중국에 높이 드사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7월 1일 ~ 7월 13일

**7월 1일 ~ 7월 6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강원 춘천 / 주향교회(이\*\*010-6254-3162, 7.1(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7.1~2,5~6(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7.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7.2~3(10~13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우\*\*010-6818-2949, 7.2~5(14~16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우\*\*010-4510-1070, 7.2.5(10~12시)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김\*\*010-6269-4821, 7.5(0~24시) ▶경북 영덕 / 다사랑교회(김\*\*010-5507-0198, 7.5(20~22시) ▶광주 동구 / 삶이예배인교회(진\*\*010-4265-0209, 7.5(12시)~6(12시) ▶대구 중구 / 대구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외 13교회 진행중.

**7월 8일 ~ 7월 13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4501-0059, 7.8(0시~24시) ▶전남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7.8,10~13(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7.9(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7.9~12(09~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7.10(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7.10(06시)~11(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7.11(11~13시) ▶인천 연수 / 인천안디옥교회(이\*\*010-4200-5237, 7.11(19~21시),12(14~16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7.12(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7.12(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그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 기획 | 선교 훈련 가이드 (1)

# 순회선교단, 믿음의 실재를 경험하는 해외 아웃리치



▶ 순회선교단 복음선교관학교 아웃리치 현장 A국에서.

복음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결단 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선교적 삶에 대한 갈망이다. 선교를 준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선교 단체의 선교훈련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선교훈련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열음물을 들고 다니시더군요. 열이 많아서 열음물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죠. 뒤늦게 그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권사님은 아웃리치로 선교지를 다녀오신 이후 자신의 삶이 너무 안락함에 젖어있으며,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드린 믿음의 결단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회선교단(이하 순단)에서 복음

선교관학교를 섬기고 있는 한 선교사의 고백이다. 선교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지를 다녀오면 많은 간증이 생긴다. 열악한 삶의 환경, 열정적인 선교사들의 믿음의 순종, 성도들이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현장의 열정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순단은 상반기, 하반기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복음선교관학교(이하 선교학교)와 중보기도학교(이하 기도학교), 위대한초대학교, 복음사관학교 등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선교와 기도, 복음의 용사들을 배출해낸다. 그중 선교학교와 기도학교, 사관학교는 훈련의 마지막 과정인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 강의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배웠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삶으로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동안 형태는 다양

하게 바뀌었으나 해외 아웃리치는 18년이나 이어져왔다. 특히 아웃리치는 단순한 선교의 경험이 아닌 믿음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2019년 상반기는 수십 개 나라에 팀을 보냈다.

아웃리치를 위한 팀이 꾸러지면 그때부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믿는 삶의 훈련이 시작된다. 항공비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진행되는 모든 일정까지, 특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어느 해, 한 훈련생이 아웃리치를 떠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야 했다. 이 훈련생은 예상치 못한 휴가를 다녀오라는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10일이라는 휴가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휴가를 다시 요청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전무후무한 장기휴가를 받아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되었다. 훈련학교를 진행하는 한 선교사는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이를 통해 가려진 믿음의 눈을 열기도 하셨다며 그때의 은혜를 전했다.

아웃리치는 어른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청소년들도 참여한다. 순단이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빛의열매학교가 그것이다. 아직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8주 동안 들었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른과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향한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전도와 기도를 하며 열방을 복음으로 섬긴다.

인도로 아웃리치를 떠난 중학교 1학년의 한 청소년은 3억 3000개의 신을 믿는 인도인들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늘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암리차르의 골든템플에서 시크교도를 봤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원에 와야 했다. 답답한 터번을 쓰고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신성한 물로 몸을 씻고, ‘구루’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구루를 섬기는 8살 아도를 보았다.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라자스탄에서 점을 치고 있는 여인도 보았다. 이 여인에게는 돈의 문제, 고통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더 시급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형제는 다음날 자기가 만난 하나님



▶ 순회선교단 다음세대 빛의열매학교 1국 아웃리치 현장에서.

을 외쳤다. 하나님은 아웃리치를 통해 이 땅의 다음세대에게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고 계셨다.

다음세대팀을 인도하는 현장 선교사는 어린 아이들이 험한 산속에서 일정을 보내며 인도의 더위와 벌레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도교회와 연합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육체의 연약함이나 나이의 연소함이 문제가 아니고,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영적으로 전신감주를 취해야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세대들이 현지인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스킷 드라마와 강의를 통해 복음을 선포할 때 현지인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지속되었던 곳에는 아웃리치팀의 방문은 가난한 심령에 단비와 같다. S국 교회는 핍박 속에서 아웃리치팀과 함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 아웃리치 팀이 현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현장선교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니 기적이거나 보이는 것에 두었던 견고했던 믿음의 터가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이때야말로 복음으로 무장된 증인이 필요한 때라고 결의를 나타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있다. [GNPNEWS]

Y.K.

## 낙태·동성애 지지하는 업체와 언론... 반대진영 노골적 공격해

시민들, 낙태 및 동성애 지지업체 대상 ‘불매 운동’ 등으로 저항

최근 국내외 업체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며, 이에 반대하는 진영을 상대로 서비스 제한, 기업체 이전 위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낙태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는 지난 5월 7일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워너미디어, NBC, 온라인 TV·영화 업체 훌루 등이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조지아주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계해택으로 ‘제 2의 할리우드’로 주목받는 조지아주에서 ‘빅4’ 미디어 업체들이 제작 전면 중지 카드로 낙태금지법을 발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를 살해하는 일

을 옹호하는 회사에 돈을 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자는 청원을 6월 3일 시작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인 마르쿠스 핏만에 의해 시작된 이번 청원은 시작한지 이틀 만에 취소금액이 넷플릭스는 16만 1000달러, 훌루는 5만 1000달러, 디즈니 플러스는 2만 4000달러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외국계 동성애 지지 업체가 동성애 반대 단체의 온라인 회원수를 강제로 축소한 사례도 나타났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반동연)와 반동성애국민연대(반국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코리아는 올해 7000명이 넘는 반동연 그룹 회원을 5726명으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2019.1.25.확인)한데 이어 4월 28일 반동연그룹회원을 다시 5000명으로, 반국연그룹회원은 1841명에서 1000명으로



▶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한 사람이 팻말을 들고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유명업체 최고경영자(CEO) 180여 명이 6월 10일 뉴욕 타임스에 게재된 전면광고를 통해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낙태금지가 유능한 직원 채용과 고객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낙태뿐 아니라 동성애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관측활동에 이러한 동성

애 코드에 맞는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던 퀴어행사에서 오비맥주가 같은 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올해로 스무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너의 색깔을 응원해, YASS!”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올린 카스 사진은 캔 디자인에 무지개색을 덧입혔다. 특히 ‘#퀴어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해시태그도 걸어 이번 마케팅이 동성애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 업체들과 함께 세계 각국 언론매체들은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존중 단체나 이런 단체를 지원한 업체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낙태 반대 단체인 오브리아그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 역시 낙태와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도하는데 반해,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최근 낙태, 임신중절 등의 키워드로 언론기사를 검색해보도 “우리는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안전하게 낳을 권리”,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고민할 때”, “낙태죄야말로 비도덕적” 등 낙태를 정당한 권리라는 관점으로 작성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기업의 마케팅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낙태와 동성애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어, 전통적인 성관념과 윤리도덕 의식 제고를 위한 기독교계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18)

## “창세기 1장 1, 2절 사이에 루시퍼가 창조된 것 아니다”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라”(창 9:1)고 말씀하신다. 창조 이후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라는 간격론자들은 이 말을 놓고 이렇게 말한다. “그것 보라, 충만하라고 쓰여 있잖아. ‘충만하라’는 말은 ‘다시 채우라’는 뜻이다. 사전 찾아 보라.” 진짜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단어를 번역했을 당시인 1611년 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 킹 제임스 번역자들은 ‘말레’라는 단어와 마주쳤다. 그것은 ‘채우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였다. 그리고 그들은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를 선택했다. 그러나 1650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가 ‘충만하다’라는 단어에다 ‘다시 채우다’라는 두 번째 정의를 더했다. 1650년까지는 다시 채우라는 뜻이 없었던 것이다. 1828년도의 오래된 사전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충만하다’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채우다’이고 두 번째 의미로

‘다시 채워 넣다. 처음 양만큼 회복되다’이다. 그러나 1982년에 사전이 이 정의를 바꿔치기했다. 1891년에는 첫 번째 정의가 ‘채우다’였는데 1892년에는 첫 번째 정의가 ‘다시 채우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가 ‘채우다’가 되었다. 더 나아가 1989년 사전에는 ‘다시 채우다’라는 정의만 보여주고 첫 번째 정의였던 ‘채우다’를 아예 빼버렸다. 현재의 21세기 사전에도 ‘충만하다; 다시 채우다’라고만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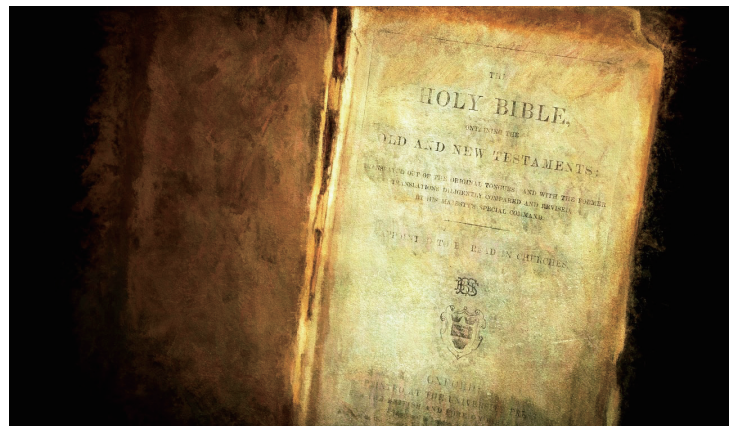
영어의 의미는 수시로 변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쿨하다’라는 뜻이 ‘뜨겁지 않다’라는 뜻이었다. ‘게이’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이 말은 어떻게 판독하겠는가? 야고보서 2장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And ye have respect to him that weareth the gay clothing, and say unto him..., ‘게이’라는 단어가 아름답다는 뜻으로 사용됨. 역자주)” 그 단어의 의미가 지난 30여 년간 바뀌어왔다는 것을 알겠는가? 요즘은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쓰면 안 된다. ‘게이’가 요즘은 동성연애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롬 1:13) 여기서는 ‘let’이라는 단어가 ‘막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처럼 영어 단어는 의미가 바뀐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영어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 루시퍼는 언제 창조됐나?

우리는 에스겔 28장에서 루시퍼에 관해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총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겔 28:12-15) 첫째로 그는 창조된 존재다. 성경은 ‘네가 지음을 받던 날’이라고 그 사실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 그



는 하나님처럼 영원하지 않은 창조된 존재다. 둘째로 그는 에덴에 있었다. 셋째로 그는 죄를 지을 때까지 에덴에 있었다. 에덴동산은 6일 째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1절과 2절 사이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에덴동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에덴동산에서 아마 한참 동안은 좋은 존재로서 있었을 것이다.

에스겔은 사탄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고 말한다고 서술한다. 그가 지혜와 부와 아름다움과 힘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다고 한다. 지혜, 부, 아름다움, 힘. 이 네 가지는 지금도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욕기 38장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 다섯 번 나

오는데 항상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흥분했다고 증언한다. 루시퍼도 이 가운데 있었고, 그 영광으로 흥분했을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이 행성에 뭔가를 하시겠구나.” 나는 이 날이 마른 땅을 드러내신 셋째 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물 덩어리였는데 셋째 날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천사들은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만들어졌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6일 째가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루시퍼가 나쁜 존재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셨다. <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어려운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최적기

T국을 방문했습니다. 내년 대선에 앞두고 있는 T국은 매우 민감하게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전화, 인터넷, 모임이 심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엄마를 찾아서 들어간 것이 적발되어 큰 벌금을 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나가는 성도들을 추적하여 벌금을 매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올 가을에는 복음캠프를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비록 산지라도 철병거를 가졌어도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수 17:18)’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 상황이 두려워도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시겠다는 믿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교회들이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 놀랍게도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예전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교제하던 자매 캣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 하루는 남편이 술김에 이슬람식 표현으로 ‘세탈룩(세 번 이혼하다)’이라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 전통은 ‘세탈룩’이라는 말을 내뱉으면 이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부인을 데려오려면 그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이혼을 당해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인을 일부러 무슬림 사제에게 시집을 보냈다가 다시 데



▶ 선교현장의 한 집회장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캣트는 남편과 한 집에서 반을 나누어 따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시골에서 어린 처녀를 데려와서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은 술 때문에 죽었고 그 새 부인과 거기서 태어난 두 어린아이는 여전히 캣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간 그날도 그녀는 이슬람식 기도(나모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 교제하면서 수없이 들려주었던 복음을 다시 들려주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울고 있는 여인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결연히 주님을 믿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캣트와 그 가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GNPNEWS]

N국=산지·요단 선교사

###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박소연 집사(우정교회)

교회에 도착해보니 평일인데도 예배당에선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박소연 집사를 만났다. 박 집사가 꺼낸 첫 마디는 자신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녀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이끄신 그녀의 인생 여정을 들어봤다.

-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목표가 생기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냐?’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제게 실제 되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는 목마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활형편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남편은 한의사에다 40대에 장로가 될 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남부러울 것 없었어요. 그런데 내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됐어요. 늘 어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살핌으로 나를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남편 몰래 해야 했어요.”

##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 장로님이 싫어하셨나 보군요?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외에는 물질(돈)을 쉽게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복음을 만나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금욕주의 수준이었어요. 자신에게 완벽했죠. 남편은 한의원 원장 사모라고 하면 아주 여유로울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재정 측면에서 억눌려 살았어요. 남편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없어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못 쓰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게 저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배부른 소리죠? 남편 몰래 옷도 사고, 밥도 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

주고 하다 보니 빛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럴 즈음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 위기의 순간에 복음을 만나셨군요.

“몇 년 전 울산에서 ‘다시복음앞에’ 집회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참석하면서 구원에 관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특히 헤브론 원형학교 학생들이 ‘로마에 온 편지’라는 스킷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로마서를 통째로 외워서 스킷을 했죠. 그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복음학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훈련에 참여하면서 제가 그동안 매여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해 죽음을 결단했어요. 물론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에 대해 막연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적어도 재정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고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정산하기로 했죠. 남편에게 고백하면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도 컸어요.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도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기로 하고 용서를 받았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후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훈련들을 받았어요. 남편도 나중에 복음학교 훈련을 다녀온 후 그동안 허투루 살았다고 하더군요.”



▶ ‘다시복음앞에’ 집회에서

-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나보군요?

“남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남편은 이제 자신이 정해놓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우리 가정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남편에게는 이전에도 주님에 대해 올곧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병원건물은 한의원이

라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선교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허름한 건물이에요.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은 화려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통해 환자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길 원해요. 남편은 복음을 만나고 더욱 병원에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분들은 치료만 하지 왜 말씀을 전하냐고 따지기도 한대요. 그럼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



▶ 병원에서 남편 홍광석 장로와 함께

느 땀, 치매 환자나 승려도 이곳엔 신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한 의원을 선교회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저는 중간 중간 많이 불평하기도 했어요.”

## 종교생활인가 생명이 있는 삶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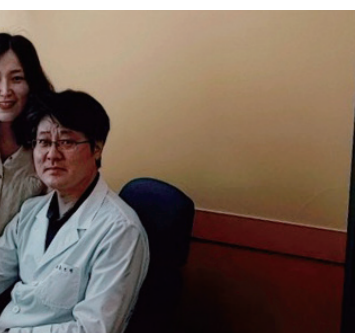
- 어떤 불평인가요?

“병원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고치면 안 될까 생각도 했죠. 그러나 주님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셨어요. 이 건물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 이후 제 기도제목도 바뀌었어요. 이전엔 한의원 잘 되고 의료사고 안 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님이 병원으로 불러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소식들을 놓고 기도해요. 주님이 무지한 저를 참 많이 가르쳐주시고 인도해가세요.”

- 주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도 궁

금하네요.

“복음을 사모하면서 여러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복음 앞에서 저를 비취보게 되니까 제 존재가 얼마나 악독하고 회생 불가능한지 보게 됐어요. 예전엔 항상 두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세상에 대해 집착하거나 인정에 매여 있기도 했어요. 어느새 신앙훈련을 받고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섬기니까 주위에서 대단하다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묵묵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사람들에게 인정받



▶ 병원에서 남편 홍광석 장로와 함께

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런 걸 했다는 제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었죠. 가면무도회처럼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죄된 생명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남편과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요. 이런 시행착오는 참 많아요.”

- 더 들어보고 싶네요.

“자녀들에게도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제시하면서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아들이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땐 가슴 아팠지만 생명 없는 율법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죠. 저도 복음 앞에 서면서 예수 생명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생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들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용서도 구했죠. 그때는 잘 몰랐다고요. 두 아이를 중국에 유학 보내면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창조한 자녀들이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때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또 한번 주님께

배우고 다음세대를 향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겼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 요즘 청소년들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하던데요? 어떤가요?

“아이들 정서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도 힘이 들죠. 제가 앞에 있어도 욕을 계속해요. 처음엔 너무 까마득하고 막연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와 교회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저에게 대놓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능성 없구나. 도저히 이 사역을 못 하겠다. 그만 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너는 가능성이 있었나?’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가능성이 없었죠. 주님이 나를 포기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죠. ‘내가 너를 구속해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창조한 자에게 모든 것이 열려있다. 그 자녀도 내 자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용당해도 좋으니깐 같이 가자고 생각했어요. 돈 달라면 돈 주고, 그 아이들 노는 데 계속 따라다녔어요. PC방이며 방방장이며...”

## 소망 없는 내게 일하신 주님이 다음세대에게도 일하실 것

-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워요. 하루는 한 아이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건 그 애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가장 포기할 것 같은 아이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준 것 뿐이에요. 그 사랑이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사실 제가 변했어요. 예수 생명이 되지 않으면 벌써 인간 정서로 판단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믿음에 파선했죠. 그러나 복음과 기도로 달려가면 주님과 연합된 예수생명의 삶이 진짜 이루어져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영원한 사랑의 복음 (6)

#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우리의 저주를 끝장내신 승리의 선언이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모든 명예를 다 갚으셨다. 정죄할 율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의롭고, 거룩하다.

주님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초대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 자아의 ‘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다.

구원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가 무엇일까. 교리를 유창하게 읊어대는 것인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고, 거둬나지 못한 채 병든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조차 이용할 대상으로 삼는다. 자기만족과 유익

을 위한 하나님,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자만 찾을 뿐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너무도 분명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거듭남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9)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트집 잡지 않는다. 다 이해 못하는 상황, 울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더욱 새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 8:28).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표는 하나님 사랑이다. 예언도, 지식도, 각오도, 결심도 다 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러스트= 노주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전 13:7).

### 구원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의지가 박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민과 갈등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에 별별

떨기도 했다. 그러나 작은 씨에서 어린 싹이 틔우고 돌아나면 빛을 찾아 자라 올라가듯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없이는 한 순간도 견딜 수 없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

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이 없다. 결론은 주님 밖에 없다.

아담의 무서운 저주에서 인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고 크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해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무슨 성공을 더 원하는가? 무엇을 더 누려보고 싶은가? 자아의 허망한 짓 언제까지 하려는가?

불가능한 내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안에 거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라! 사탄에게 이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실 것이다. (2017년 5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8)

### 아브라함 후손의 고유 명사, 이스라엘(יִשְׂרָאֵל)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יִשְׂרָאֵל)”이란 이름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이 이름은 창 32:28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만나기 전 압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결사적으로 얻은 “웁 하다쉬(עֵשׂוֹ וְיִשְׂרָאֵל, 새 이름)”다. 야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웁 하다쉬(새 이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고유 명사가 되었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신·구약 성경의 대 주제인 언약(בְּרִית, 브리트)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아담에게 시작된 언약(창 3:14~19)은 노아의 보존 언약(창 6:18, 9:8~17)을 거쳐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진다(창 15, 17장).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창 26:23~25), 그 아들 야곱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다(창 28:13~15).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그곳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재차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셨다(창 35: 9~15).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

시고 주신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중요하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개명(改名)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의미 있는 이름(covenant name)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거둬 확인하며 계승되어진 언약의 신실한 증표(sign)라 말할 수 있다.

마치 구약성경 6000번 이상 나타나 언약 관계와 관련되어 사용된 신명(神名), “여호와(יהו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듯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약 백성 “세굴라(שֵׁגֻלָּה, 출 19:5~6)”에 붙여진 특별한 이름이다. 가장 애지중지 소중한 이름이다. 그 이름의 의미도 다양하게 히브리어로 담고 있으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와 신부라, 여호와와 아들이라, 여호와와 종이라, 여호와와 군대라, 여호와와 포도원이라, 여호와와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와 그릇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시 72:17)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된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 이야기다.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성경에 무려 신명 여호와 다음으로 2336회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보전하며 지켜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값진 텍스트(original text)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이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법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롬 3:1~2)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와 겨루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자답게, 하나님의 영예(榮譽)가 들어있는 존재가 변화된 정직한 자답게, 하나님을 본 자답게, 피로 맺은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방을 끌어 안고 성경의 증인 들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날을 기대한다!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 Interview

<5면에 이어>

### 예수 생명으로 사는 선교사의 삶

- 예수생명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미군요? 그 삶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보다 주님은 아직 연약한 저를 계속 가르쳐가고 계세요. 신앙훈련을 받다보니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군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계속 훈련을 받으며 해외 아웃리치를 나가니까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교회 심방 사역자로 섬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가 남편과 연합해 교회에서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곧 저의 선교사로의 부르심이었

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 비로소 보였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선교지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지금 첫째 아들은 헤브론선교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 입학식 때 들었던 한 목사님의 축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학교 총장은 하나님, 교수는 성령님, 학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졸업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눈물이 나면서 동의가 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걸음에 우리 부부와 아들까지 함께 부르셨구나. 둘째 아들도 아직 중국에 있는데 선교사로 드렸거든요. 우리의 앞길이 어떠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Y.K.



▶ 교회 중교등부와 함께 한 거리전도

제공: 백승원 목사





# 삶의 그 순간, 주님을 만나다

성도의 삶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의 싸움이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편집자>

##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 며칠 일이 많아 잠이 너무 부족했다. 찬양도 들어보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보기도 했지만 피곤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다. 시원한 것을 먹으면 잠이 좀 깰까 싶어 주님께 기도했던 그 아이스크림이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간 두 가지에 놀랐다. 작은 주절거림도 정확히 응답하신다는 것과, 내가 기도를 하고도 있느냐

는 것.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늘 믿지 못하는 나의 실상이 부끄러웠다. 더한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 비싼 것을 구해야 했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구하는 탐욕에 찌든 나의 존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도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삶의 작은 순간에 발견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매일 나를 살게 한다. (정한나 자매, 충남 서산)

## 숨이 차도록 주님의 사랑 노래 할래요

난 한 기독교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 이번 학기 음악수업 기말고사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으로 자기만의 찬송가를 만들어 연주하는 것이었다. 이제 도, 레, 미와 음표 몇 개를 배워 얼마나 대단한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싶었다. 물론 대단한 곡은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곡은 쉽표도 없고 기하학적 선율의 진행이었다. 시험을 보기위해 아이들과 반주를 맞추며 저마다

만든 독특한 곡을 불러보았다. 처음엔 숨도 쉴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하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숨이 차도록 찬양해 본 적이 언제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내 마음이 숙연해졌다. 숨 가쁜 아이들의 찬양을 함께 부를수록 더욱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숨이 차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생각하게 됐다. 지금은 아이들이 연주한 노래를 즐겨 듣는다. 들을수록 더욱 내 고백이 된다.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담을 수 없는 바닷물처럼, 끝도 없는 저 우주같이 똑 닮은 주님의 사랑 나는 노래할래요~’ (서OO 자매)

## 절대 미각과 절대 진리

군에 있는 아들은 부대의 음식들이 유난히 맛이 없다고 했다. 어떤 날은 훌륭한 식재료로 이런 맛밖에 내지 못하는 솜씨가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 부대 취사병의 솜씨가 많이 미숙한 모양이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직업군인을 만났다. 대화 도중 군대 음식 얘기가 화제



일러스트= 고은선

로 올랐다. 놀랍게도 그가 근무하는 부대의 음식은 정말 맛이 있다고 했다. 그 부대에도 취사병이 음식을 만들기는 마찬가지일텐데... 궁금했다. 어떤 차이일까? 대화 도중 마침내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다. 그 직업군인이 근무하는 부대에는 음식 맛 감별사가 있었다. 그분은 평소 식사준비는 하지 않지만, 음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간을 보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사병에게 소금, 간장 등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이다. 그렇게 그의 훈수를 들은 국과 반찬들은 모든 부대원이 감탄하는 훌륭한 음식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로 올랐다. 놀랍게도 그가 근무하는 부대의 음식은 정말 맛이 있다고 했다. 그 부대에도 취사병이 음식을 만들기는 마찬가지일텐데... 궁금했다. 어떤 차이일까? 대화 도중 마침내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다. 그 직업군인이 근무하는 부대에는 음식 맛 감별사가 있었다. 그분은 평소 식사준비는 하지 않지만, 음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간을 보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사병에게 소금, 간장 등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이다. 그렇게 그의 훈수를 들은 국과 반찬들은 모든 부대원이 감탄하는 훌륭한 음식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로 올랐다. 놀랍게도 그가 근무하는 부대의 음식은 정말 맛이 있다고 했다. 그 부대에도 취사병이 음식을 만들기는 마찬가지일텐데... 궁금했다. 어떤 차이일까? 대화 도중 마침내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다. 그 직업군인이 근무하는 부대에는 음식 맛 감별사가 있었다. 그분은 평소 식사준비는 하지 않지만, 음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간을 보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사병에게 소금, 간장 등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이다. 그렇게 그의 훈수를 들은 국과 반찬들은 모든 부대원이 감탄하는 훌륭한 음식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 ‘북한의 토요일은 김일성을 위한 안식일’... 북한종교자유연대 창립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은 주민들의 세뇌교육을 위해 김일성의 성장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서술방식과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북한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을 추구하는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이하 북한연대)’ 창립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북한연대는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를 국가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국가기관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종교 관련 활동을 하거나 종교서적을 소지하다 체포되면 일반 범죄가 아닌 반역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대표는 축사를 통해, “종교의 자유는 모든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연대를 맺어서 시민사회,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그 바람을 북한에 넣어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전 공사는 창립대회에 앞서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은 기독교 교리를 차용해 독재세습 통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성경책에 나오는 십계명을 읽어보니 북한에서 아홉 살 때부터 달달 외웠던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너무나 똑같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양력이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기준으로 삼는 주체력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배움의 천리길’과 ‘백두산 답사’라는 순례 행진

### 성경의 십계명과 북한의 10대 원칙

1.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우상을 섬기지 말라.	2.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3.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여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5.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존,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살인하지 말라.	6.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당의 사상적·정치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 간음하지 말라.	7.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생활, 인민적 사립자품을 지녀야 한다.
8. 도둑질하지 말라.	8. 당과 수령이 인거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심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0.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정성과 김정일이 이룩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토요일은 김일성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살하고 있다면 공산권의 모든 독재자들이 종교를 탄압했지만 김일성처럼 성공적으로 말살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비전, 접근법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신은 북한 사람들도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성경책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

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연대는 태영호 전 공사와 북한에 2년 간 억류됐다 2014년 풀려난 케네스 배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 이사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GNPNEWS]



##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살고 있는가? 경건주의 운동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경건의 모양에만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건주의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경건주의 운동은 감정적으로는 주님께 헌신하는 듯 보이지만 지적으로는 주께 반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오직 그 방법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아닌, 오직 그분에게만 고정하라.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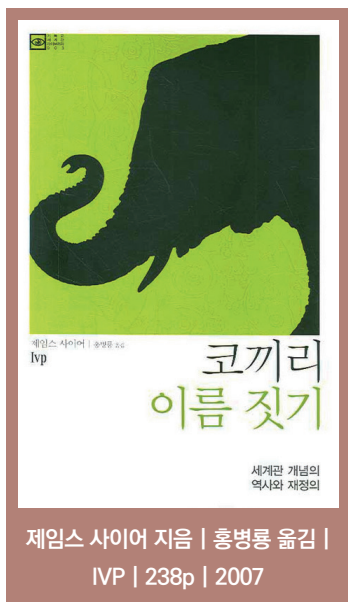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제임스 사이어 <코끼리 이름 짓기>

# 창조주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질서를 찾는다



이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럼 캥거루를 받치고 있는 것은요?” “음. 그건 거대하고 힘이 센 코끼리지.” 아이의 질문은 끝이 없다. “결국 코끼리를 받치고 있는 것은요?” 난감해진 아빠는 “그 밑으로는 모조리 코끼리야.”라고 대답해 버린다. 그래서 ‘코끼리 이름 짓기’라는 책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세상은 자연발생적으로 파생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것인가?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 저자는 세상의 여러 지식과 이론들을 규명하다가 결론적으로 왜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변증한다. 여러 세계관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음을 증명해 낸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필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시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에 대한 강한 신념과 믿음에서 나온 태도였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무신론자인 바츨라프 하벨(전 체코 대통령)의 고백이다. 아주 늦은 시간 전차를 타는데, 표를 검사하는 차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소리가 자기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무한한 지식을 가졌지만 전혀 오염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모든 도덕적 문제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이며 그 자체가 법이었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그를 통해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고 그를 위해서라면 궁극적으로 무엇

이든 기꺼이 할 수 있는 존재, 동시에 이 누군가는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말하는 존재였다. 그런 존재라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그 존재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이지만 그 현상을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세계관으로 돌아갔다.

세계관은 사람들의 역사, 사회, 사회규범, 언어에 묶여 있다. 그러나 그 세계관이 다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나면,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만큼 해체되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 실재하시며 존재하시는 한 분, 모든 것을 창조한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놀라우리만큼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질서를 되찾는

다. 나를 움직이는 그 세계관이 실제 나의 삶에 100%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움직이는 힘까지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거대한 코끼리 밑으로는 모두 코끼리’라는 아버지의 허무한 대답에 그럼 그 코끼리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낙타와 캥거루 이하를 받치고 있는 그 거대한 코끼리, 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과 야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코끼리의 이름이다. 그분은 지구뿐 아닌 지구를 둘러싼 헤아릴 수도 없는 단위의 무수한 은하계를 질서 안에서 다스리시며 또한 계속 팽창되는 우주 또한 한 손가락으로 받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시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 10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뇌종양이요?”

저녁을 먹고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승현이가 이상해!” 전화기 속 큰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다급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형이랑 같이 지내고 있던 둘째가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119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거기서도 2~3분 정도의 발작 증세가 5~10분 간격으로 두 번이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고 우리는 급히 가족과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3시간 반을 달려 자정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저도 아이들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담당 의사는 검사결과를 보더니 왼쪽 뇌에 2cm 정도 크기의 종양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성인지 아닌지, 수술을 해야 할지 약물치료를 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은 신경외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야 한다며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뇌에 종양이라니... 이제 겨우 20살인데 우리 아들 어떡하지?’ 눈물

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보다 더 짙은 어둠의 새벽을 지나 아침이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주말이라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퇴원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기다림의 이틀 밤을 다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곳저곳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주는 지체들의 은혜를 입어, 거짓말처럼 불안하고

리 가정 안에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 한계 상황에서 경험한 주님의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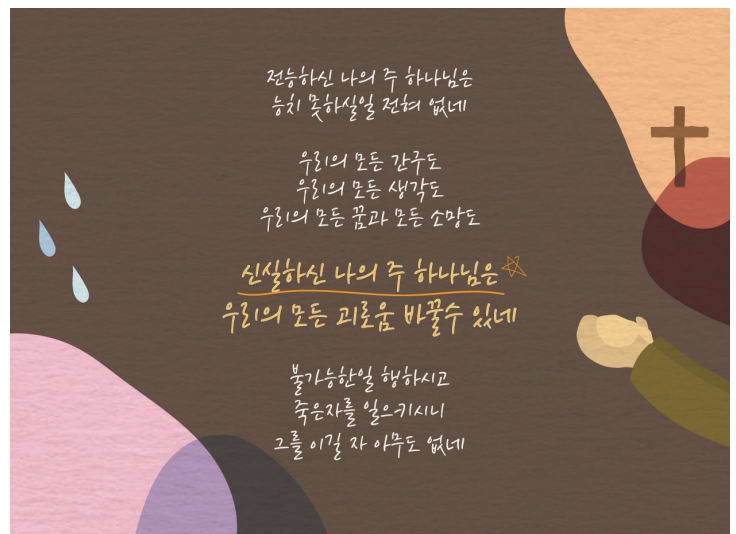
월요일이 되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는데도 확실한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은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소견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다시 한 번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3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불확실하고 희

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지. 아이의 병에 대해서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의사의 진단이 아닌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진단이 나와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나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서 뇌종양은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발작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지켜보다가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GNPNEWS]

서찬미



일러스트= 이수진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지금껏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던 아들을 깊이 만나주실 거라는 확신과 우

미한 상황에 다다르자 아이는 다시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또다시 어떠한 선고든 듣기 위해 기다려야 하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6. 7 ~ 6. 26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고은영 김나리 김사회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유남 김정화 김혜신 박성규 박숙자 송경순 유국주 이경형 이미영 이은주 이준진 이현희 정영숙 정옥영 정효진 조경미 조명숙 조상국 조재순 차인순 차정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꿈꾸는교회 모리아선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사관학교 산돌교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소망교회 천보산기도원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